

한(韓) 특허청, 선진 5대 특허청(IP5) 차장회의 주최

- '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의장국으로 의제 사전조율 -
- 신(新)기술 대응,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등 논의 -

특허청은 4. 9.(화) 오후 8시,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선진 5대 특허청(IP5)(한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 특허청) 청장회의 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한 ‘선진 5대특허청(IP5) 차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의장국으로 6. 18.(화)~20.(목)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해 열린다. 선진 5대 특허청(IP5) 차장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고위관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차장회의에서는 ①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체계 구축 방안과 ②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③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개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전(全)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대 특허청(IP5)을 설립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①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체계 구축 방안 논의>

선진 5대 특허청(IP5) 차장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선진 5대 특허청(IP5) 각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해외 특허권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선진 5대 특허청(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해 주는 ‘국제적 특허양도’ 과제(한국 및 미국특허청 주도)에 대하여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②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논의>

2019년 인천(송도)에서 열린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 하에 수립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의 첨단기술/인공지능 이행안(로드맵)(NET/AI Roadmap)’의 이행 현황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던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제안하여 승인되었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선진 5대 특허청(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 연구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며, 이 연구결과에는 미 백악관 행정명령('23.10)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선진 5대 특허청(IP5) 내에서 첨단기술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③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 모색>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작년 청장회의에서 그간 심사협력 및 제도조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선진 5대 특허청(IP5)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명시하는 데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선진 5대 특허청(IP5)가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특허청은 '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주제를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체계 구축’으로 정했다. 이날 청장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청장회의에서 경제성장, 혁신과 기반(인프라)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의 구체적 지식재산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창의와 혁신의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 5대 특허청(IP5)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해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세계 지식재산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 붙임: IP5 청장회의 개요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정대순 (042-481-5063)
		담당자	사무관	허원석 (042-481-8766)

- **(개요)**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한-미-일-중-유럽’의 5대 특허청* (IP5; Intellectual Property 5)간 업무 공조를 위해 '07년 출범한 협력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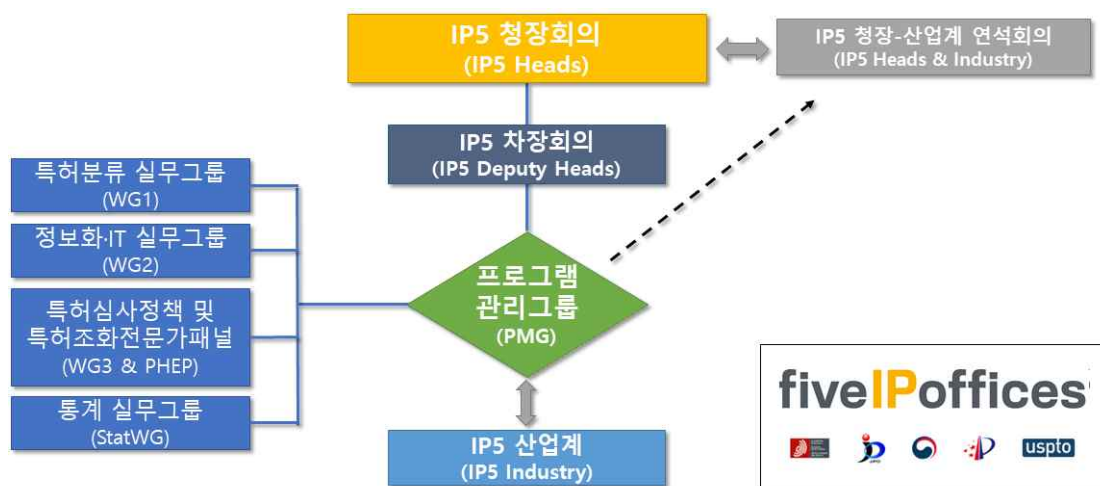
* '22년 전세계 특허출원 건수(순위) : 중국 1,619,268건(1위), 미국 594,340건(2위), 일본 289,530건(3위), 한국 237,633건(4위), 유럽특허청 193,610건(5위)

- **(협력비전)** 지속가능*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 특허환경 조성을 위한 특허 관행·절차 조화, 업무공조, 고품질 조사 및 심사결과의 적시 제공

* '23년 협력비전개정을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IP5의 역할에 대해 본격 논의 시작

□ 협력체계

- 분류(WG1), 정보화(WG2), 심사정책(WG3 & PHEP) 및 통계(StatWG) 등 각 분야 실무그룹을 통해 협력 과제 수행, 청장회의에서 최종 검토·승인
- 수요자 중심의 협력 과제 발굴,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해 IP5청-사용자그룹(산업계)간 연석회의 개최



□ IP5 협력 주요성과

-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분야 선진국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참여,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
- 특허심사 정보조회시스템(OPD) 구축, 특허우선심사(PPH), 공통 특허 분류 협력 등을 통해 심사처리 기간 단축 및 품질향상에 기여
- 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 등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환경 구축